

OTHELLO의 犠牲

(The Sacrifice of Othello)

全 濟 玉

- | | |
|-----------------------|----------------|
| 序 | 4. Iago의 離間 |
| 1. Story와 Play | 5. Iago와 Aaron |
| 2. 걸맞지 않는 Othello의 結婚 | 6. Othello의 犠牲 |
| 3. Jealousy와 Othello | 結 |

序

Othello를 William Hazlitt는
“the progressive interest and powerful alterations of feeling”

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人種을 度外視하고, Desdemona의 嚴格한 아버지인 上院議員 Brabantio의 命을 어겨가며, 純眞한 사랑만으로 結實된 아름다운 結婚에서 첫밤을 지낼 사이도 없이, 敵의 侵略을 制壓하기 爲해서 Cyprus로 出征하는 Othello의 늙은 將軍모습에는 豫期하지도 않은 人生波瀾이 實사이 없이 惹起되어, 그의 直線의이며 率直·淡泊하고 單純한 軍人氣質은 餘地 없이 깃뻛히고, 根據도 없는 謀諂으로 猜忌心이 생겨 맑은 精神이 흐려짐으로 淸純했던 사랑에 난테 없이 疑妻症이란 무서운 病을 일으킨다.

Othello 自身도 처음부터 그의 結婚生活에 未知의 不安感이 胚芽되거나 않을까 하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天下의 惡의 化身이며 正直과 服從을 假裝한 Iago에 依하여 自己自身을 喪失하고 Iago가 意圖한대로 움직이게 되며 그의 計略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빠져들고 말아 甚至於는 Iago의 마음 속으로 自身을 집어넣어 모든 判斷力까지도 그를 따라갈 程度로 完全히 變身變心하게 된다.

P
420
Sebnh
1976.
c.5

이리하여 鐵石같이 밀어 왔던 純愛 貞烈을 疑心할 수 없었던 Othello였지만, Iago가 提示하는 허수아비證人들——Roderigo, Cassio, Bianca——이나 證據物로 나타나는 손수건 같은 것에 對해서도 全히 事實인지를 立證시킴이 없이 偏見과 獨斷으로 愛妻를 無慘히 殺害하고 自殺하는 悲劇으로 끝을 맺는다.

이것이 單純한 猜忌나 疑妻症에서만 저질러지는 일이라면 한낱 episode나 melodrama로 그칠 것이나, 스스로 마음 속으로 이런 不貞·不潔을 確認한 다음 이런 不美스런 일이 또다른 사람에게 저질러 질 것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해서, 自己 스스로가 神의 代理人·正義의 代行者로 犧牲을 覺悟한 神聖하고 崇高한 마음씨를 發露하며 不知中에 일으킨 誤判으로 意外의 殺傷이 恣行되니, 眞正한 悲劇으로 讀者나 觀衆으로 하여금 pity와 fear을 자아내고 만다.

Othello의 結婚, Iago의 離間, Othello의 神의 代理人으로서의 犧牲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저 한다.

1. Story와 Play

Othello는 Shakespeare의 悲劇中에서 여섯번째이고 四大悲劇中에서는 Hamlet 다음으로 두번째이다. 이때까지 그는 史劇 9篇과 喜劇 12篇 등 그의 全作品의 過半數를 完了한 셈이다.

大略 著作推定年度는 1604~5年頃으로 劇作家로서 그의 境地가 圓熟期로 접어들었을 때이다.

Othello의 source book으로는 Italy의 Giovanni Battista Giroldi(異名 Cinthio)의 第3部 7卷이며 *Measure for Measure*의 plot도 이 冊에서 따온 것이다.

이 原本에서는 Desdemona가 아버지의 意思에 拒逆해서 結婚하지만, 그 後 얼마동안 平和롭고 幸福된 生活을 繼續한다. 그러나 Shakespeare는 처음부터 劇의 刺戟을 주기 爲해서 Desedmona로 하여금 家出하게 한다.

Cyprus戰爭의 危機도 그가 만든 것으로 新婚의 기쁨도 맞이하기 前에 어려운 고비에 부닥치게 했다.

元來는 Cassio에게 夫人이 세명 있었으나 이 劇中에는 다만 Bianca라는 娼女를 愛人으로 삼고 있는데, Bianca는 溫順하고 貞淑한 Desdemona

와 그에게 至極한 忠誠을 다 바치는 Iago의 妻 Emilia와 對照를 이루게 한다.

손수건이야기도 原小説에는 Iago自身이 Desdemona가 어린애를 안아 줄 때 허리띠에서 훔쳐낸다. 그러나 Iago가 直接 竊取하는 것 보다는 그의 狡猾性을 더욱 나타내기 爲해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Emilia를 앞잡이로 使用하여 讀者의 미움을 살겸 Iago의 邪惡性을 表出시키며, 率直하고 純眞한 Othello가 이 수건에다 過大한 比重을 두고 어머니의 遺物로 始作되는 傳説까지 걸드려 이 수건이 마치 Othello家の 唯一한 家寶인양 그것에 神秘性까지 賦與하는 것도 앞으로 다칠 避하지 못할 큰 悲劇의 거의 決定的인 證據物로 誇張 擴大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變化는 一個 無名의 Moor人의 殘忍한 이야기를 가장 偉大한 悲劇으로 擡힌 것이다.

根據없는 單純한 疑妻症에 사로잡혀 乃妻를 殺害하고난 다음에 비로소 自己가 속임을 當한 것을 깨닫고 그 犯人에게 復讐하는데서 次元을 擡여, Iago의 奸計로 造作된 Desdemona의 不貞이란 千萬意外的 일에 Othello는 半信半疑 狀態에서 斷乎한 決定도 確認도 하지 못하고 Iago가 시키는 대로 被動的으로 움직이며 寤치거나 죽일 생각은 없지만 正義의 代行者, 神意의 代行者로서 또다시 이런 悲劇이 다른 犧牲者를 낳까 두려워 하는 神聖한 마음에서 눈물을 머금고 Desdemona에게 kiss하며 殺害한다.

Cinthio의 原本에는 Moor人과 Iago가 모래가 든 양말로 함께 Desdemona를 때려 죽인 다음 天井을 무너뜨려 그 殺害를 事故로 假裝한다. 또한 이 餘波로 Desdemona의 親戚들이 Moor을 죽임으로서 앙가품을 하고 Iago의 最後도 流血의 慘劇으로 끝마친다.

이 밖에 적은 改作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Roderigo라는 人物은 Shakespeare의 創作이다. 失戀한 그는 Iago에게 下手人으로 利用될 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財産까지도 奪取 當하여, 非情한 Iago의 惡辣한 餘裕를 보이며 또한 讀者나 觀衆의 憎惡心을 助長시키는 밀천으로 使用된다.

처음에는 Roderigo 같은 兇간이를 利用해서 Brabantio의 虛를 찢러 Moor人과 Desdemona의 秘密結婚을 即時 깨뜨리려 일을 꾸몄으나 元老院의 信賴와 外敵侵攻으로 水泡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런 일로 Iago의 計略에 差迭이나 失望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Othello의 副官인 Cassio를 攻擊의 對象으로 삼고, 그의 妾 Bianca, 自己妻 Emilia 등을 動員해

서 목적했던대로 Othello를 自己 手中에 넣어 마음대로 驅使하여 結局에
는 엄청난 殺傷을 저지르고 만다.

2. 걸맞지 않는 Othello의 結婚 (The Unnatural Wedding of Othello)

걸맞지 않는 Othello의 結婚을 言及하기 前에, 가장 重要한 事實은
Othello의 人種 即 racial identity이다.

Othello가 빛갈이 검고 입술이 두껍다는 特徵은 Negro와 識別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Moor族의 王族出身으로 되어 있는데 Moor와 Negro
間에 뚜렷한 差異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Moor는 「A native of Morocco, or neighboring North African states,
of Arab or Berber blood or of a mixture of the two」라고 定義되어 있
으며, 이들은 711년에 Morocco로부터 Spain에 武力侵入을 敢行하여 北
쪽으로 Pyrenees山麓까지 約 5世紀동안이나 支配한 바 있다. 이때 Negro
傭兵들이 侵略軍에 加擔하였다.

Spain人들은 Moor라는 말을 廣範圍하게 Arabs, Berbers, Syrians나
Negroes까지도 人種의 差別없이 適用시켰다.

이런 慣習이 他國에도 適用되어 Elizabeth 時代의 英國人들은 Spain
사람을 Moor라고 呼稱하며 嘲弄하기까지 하였다.

Iago가 Othello를 指稱하여 “black Othello” 또는 Roderigo가 그를
“the thick-lips”라고 하였고 Othello 自身도

Her name, that was as fresh
As Dian's visage, is now begrimed and black
As my own face.

[Ⅲ, iii, 384~386]

等の 句節이 나오는데 Moor라고 해서 Othello를 Mauritania族으로 規定
하든지 Negro라고 해서 Ethiopian이나 blackmoor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Elizabeth時代 사람들은 外國人에 對해서 좋지못한 感情을 지녔
으며 더구나 그들이 Moor라고 부른 種族에게는 獨特한 嫌惡症을 느꼈
다. Africa人들은 大略 猜忌, 迷信, 卑怯, 殘忍, 非情한 者로 믿었던 것

이다. 오늘날에도 忌避의 對象으로 그 人種의 區別없이 皮膚色만으로 '검둥이' 라고 부르는 것과 恰似하다고 하겠다.

Shakespeare가 Othello를 Moor인지 Negro인지 詳細한 區別없이 使用한 것도 當時의 白人들의 忌避 또는 憎惡의 對象으로, Venice의 上院議員인 Brabantio의 딸 Desdemona의 結婚相對가 되기에는 너무나 意外의 人物일 뿐 아니라 人力으로는 到底히 想像할 수도 없고 魔術에 依해서나 可能했던 것처럼 믿어지지 않을 程度로 兩極을 이루어 놓기 위한 것이다.

Othello가 그의 心性和 氣品에서는 軍人精神의 龜鑑이지만, Elizabeth 時代사람이나 Shakespeare에게는 嫌惡의 對象인 皮膚를 지니고 어떻게 Venice의 上流社會에 進出하나를 살펴 보기로 하자. Othello는 山戰水戰을 經驗한 歷戰의 勇士로 戰時에 그의 勇名은 널리 알려진 것 외에도 그의 出身成分이 다음에 나타나 있다.

Let him do his spite.

My services which I have done the signiory
Shall out tongue his complaints. 'Tis yet to know
Which, when I know that boasting is an honor,
I shall promulgate—I fetch my life and being
From men of royal siege and my demerits
May speak (unbonneted) to as proud a fortune
As this that I have reached. For now, Iago,
But that I love the gentle Desdemona,
I would not my unhousted free condition
Put into circumscription and confine
For the sea's worth.

[I. ii 19~30]

Othello는 Shakespeare가 描寫할 때는 그 當時 白人의 嫌惡의 對象이지만, 그 自身은 王族出身이며 몇몇한 軍人으로 비록 傭兵이나 他國의 危機를 도울 수 있다고 元老院의 信任이 두터운지라, 內心 自信滿滿한 面이 있다. 또 그는 自信뿐만 아니라 充分한 餘裕도 있어 Iago가 그의 下手人 Roderigo를 動員하여 첫 試圖로서 이들의 結婚을 水泡化시키려는 奸計를 막아낸다.

그와 Desdemona사이에 사랑이 싹튼 것도 지극히 自然스러우며 Brabantio가 疑心하듯 魔術을 쓴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마음을 許諾함으로써

始作된 거의 完全한 結婚인 것이다.

그의 求婚過程이 第1幕 3場의 143~186에 昭詳히 記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 나타나는 Desdemona 自身の 證言으로도 이것이 立證된다.

I do perceive here a divided duty.
 To you I am bound for life and education;
 My life and education both do learn me
 How to respect you: you are the lord of duty;
 I am hitherto your daughter. But here's my husband;
 And so much duty as my mother showed
 To you, preferring you before her father,
 So much I challenge that I may profess
 Due to the Moor my lord.

[I. iii 198~207]

이 말에 아버지인 Brabantio가 氣絶할 程度로 놀랐을 뿐만 아니라, 元老院議員들도 다같이 感動되었으니, 어느 意味로는 Lear王이 國土를 三分할 때 Cordelia가 父王에게 말한

Good my lord,

You have begot me, bred me, lov'd me; I
 Return those duties back as are right fit,
 Obey you, love you, and most honour you.
 Why have my sisters husbands, if they say
 They love you all? Haply, when I shall wed,
 That lord whose hand must take my plight shall carry
 Half my love with him, half my care and duty.
 Sure I shall never marry like my sisters,
 To love my father all.

[Lear I. i 97~106]

보다 오히려 強力할 뿐만 아니라, 傳統社會의 因襲이나 風俗을 瞬間的으로 打破하며 또 모든 사람들의 嘲笑나 輕蔑을 자아내게 하는 處事이니 良家の 闈秀로는 敢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한가지, 같은 Desdemona가 마지막 第5幕에서 Othello에게 被殺되는 場面에서는 이와는 正反對로 한마디의 抗辯이나 不平 主張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順從하고 있는 것은 보기에 애처로울 뿐더러, 그녀 自身이 품고 있는 discrepancy가 極度로 엇보이는 것이다.

Othello 自身の求婚過程에 對한 說明의 말이 있는 다음, 公爵이

I think this tale would win my daughter too.

[I. iii 187]

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安危도 問題이지만, Othello가 純粹하고 名分 있다는 것을 立證해 준다. Desdemona가

That I did love the Moor to live with him,
My downright violence and storm of fortunes
May trumpet to the world. My heart's subdued
Even to the very quality of my lord.
I saw Othello's visage in his mind,
And to his honors and his valiant parts
Did I my soul and fortunes consecrate.
So that, dear lords, if I be left behind,
A moth of peace, and he go to the war,
The rights for which I love him are bereft me,
And I a heavy interim shall support
By his dear absence. Let me go with him.

[I. iii 270~281]

라고 한 말 가운데 "I saw Othello's visage in his mind"는 意味深長한 句節로 年少한 處女가 外面 黑人이며 여러사람들의 蔑視의 對象인 Othello에게서 國境, 人種, 黑白을 가리지 않고 純소한 사랑만을 探究해낸 것은, Shakespeare의 많은 女人像中에서 뛰어난 慧眼과 洞察力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높이 評價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마음과 마음으로 엮어진 사랑에 뜻하지 않은 災難의 豫報가 있으니 Iago의 奸計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3. Jealousy와 Othello

Jealousy의 定義를 보면 :

unpleasant apprehension, suspicion, or resentment,
arising from fear or mistrust of another.

더욱 具體的으로는

unpleasant apprehension of rivalry in cases nearly affecting

suspicion of the faithfulness of husband, wife or lover.

또는 grudging; envy, as jealous of rank 등으로 되어 있으나 Shakespeare劇에서는 單純한 猜忌心보다는 夫婦間에 흔히 있는 疑妻症을 取扱한듯 하다.

Othello 以外에도 Shakespeare는 그의 後期作中 *The Winter's Tale*과 *Cymbeline*에서 jealousy를 다루고 있다.

*The Winter's Tale*에서 Sicilia王 Leontes가 그의 王妃 Hermione에게 느끼는 感情은 通俗的인 jealousy로 볼 수 있다.

王의 竹馬故友였던 Bohemia王 Polixenes가 訪問했을때 더 오래 묵을 것을 勸諭하여 失敗하자, Hermione에게 說得하도록 하고 이것이 成事되니 이제는 不當하게 두사람 사이를 疑心하게 된다.

이 jealousy는 곧 obsession이 되어 王妃를 殺害할 것을 命令하자, Camillo라는 廷臣이 두사람이 無罪하다는 것을 알고 Polixenes와 함께 夜半盜走하기로 作定한다. 이들의 逃避로 王은 더욱 疑妻症이 甚해져서 王妃를 下獄시키고 그곳에서 出産한 公主까지도 自己의 애가 아니라며 먼 곳으로 보내버린다.

한때 發狂狀態까지 突入했던 Leontes의 心情은 다음에서 밝힐 수 있다.

Is whispering nothing

Is leaning cheek to cheek? Is meeting noses?
Kissing with inside lip? stopping the career
Of laughter with a sigh? — a note infallible
Of breaking honesty! — horsing foot foot?
Skulking in corners? wishing clocks more swift?
Hours, minutes? noon, midnight?
Blind with the pin and web but theirs only,
That would unseen be wicked? Is this nothing?
Why, then the world and all that's in't is nothing;
The covering sky is nothing; Bohemia nothing;
My wife is nothing; have these nothings,
If this be nothing.

[*The Winter's Tale* I. ii 284~296]

反面, 罪없이 投獄되어 오직 Apollo의 神話에만 依支하고 모든 일이 예전대로 되기만을 苦待하며 人間으로서 지닐 수 있는 最大의 忍耐力을 發揮하며 聖堂에서 神意만이 人間の 誤謬를 마칩내는 匡正한다는 信念

만으로 견디는 王妃의 아름다움이 다음 句節에서 엿 보인다 :

But thus;—if powers divine

Behold our human actions as they do,
I doubt not then but innocence shall make
False accusations blush, and tyranny
Tremble at patience.— You, my lord, best know—
Who least will seem to do so,—My past life
Hath been as continent, as chaste, as true,
As I am now unhappy; which is more
Than history can pattern, though devised
And played to take spectators; for behold me,—
A fellow of the royal bed, which owe
A moiety of the throne, a great king's daughter,
The mother to a hopeful prince,—have standing
To prate and talk for life and honour'fore
Who please to come and hear.

[The Winter's Tale III, ii 28~41]

Leontes는 처음부터, 他人의 使嗾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誤判과 劣等感으로 말미암아 猜忌心이 強迫觀念으로까지 直時 變貌되어 理性을 完全히 喪失하지만, 相當한 時間이 지난 後에 事實이 밝혀지니, Delphi와 Apollo神의 神命까지 動員되어 無垢한 王妃의 困辱 16年만에 Perdita公主가 還宮하게 되고 죽었던 王妃까지 다시 살아나 모든 家族이 다시 結合하게 되고, Leontes가 Camillo와 公主가 成婚할 것을 말하는 happy ending으로 마친다.

The Winter's Tale은 喜劇으로, 이와같이 主人公 Leontes가 빛은 誤解가 擴大되어 無垢한 王妃, 公主 그밖의 여러 사람이 苦痛을 받게 되나 人力이나 人心이 아니고 神意에 따라 모든 것이 바로 잡힌다는 것으로 이런 劇은 melodrama 또는 comedy의 要素가 充分이 있다.

다음 이 劇과 비슷한 것으로 Shakespeare의 晩年作인 Cymbeline에도 plot는 다르나 같은 jealousy가 크게 作用하고 있다.

英國王 Cymbeline의 公主 Imogen이 父王 몰래 貧困하나 德望있는 紳士인 Posthumus와 結婚하니 王은 Posthumus를 追放해 버린다. 王은 惡毒한 後妃의 의붓아들인 Cloten과 配匹하기를 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Imogen은 Shakespeare가 創作한 偉대한 女性의 한사람으로 男便에 對한 사랑은 絶對의이며 忠誠心 亦是 比할 바가 없어, Cloten 같

은 拙丈夫는 敢히 比較는 커녕 近接조차 許容되지 못할 程度로 卓越함과 優秀함이 Posthumus에게는 있다고 깊이 믿고 있다.

이들이 作別할때 情表로 나누어 가진 팔지와 반지가 있는데, Iago와 恰似한 奸惡스런 惡漢인 Iachimo가 끼어들어 公主를 미워하는 王妃와 짜고 公主의 內室에 侵入하여 그 所重한 물건인 팔찌를 훔쳐냄으로서 貞操를 疑心하게 해서 Posthumus의 鐵石같은 一片丹心을 어지럽힌다.

때마침 英國과 Rome軍 사이에 戰爭이 일어나 Posthumus가 農民으로 假裝하고 敵軍과 激戰을 하여 天使와 같은 待接을 받는다.

그가 수수께끼 같은 豫言을 들으니 卽 “獅子새끼가 부드러운 大氣에 감싸이고 큰 杉木의 가지가 꺾어지면 오랫동안 枯死했던 것이 再生하며 古木이 봄이 되어 蘇生하게 되면 Posthumus 또한 不幸이 사라지고 英國도 遲이 트여 平和와 豐饒함이 함께 오리라.”는 것이었다.

이때 惡毒한 後妃는 스스로의 非行을 自白하며 죽고, Iachimo 等도 逮捕되어 犯行을 다음과 같이 自白한다 :

your daughter's chastity—there it begins—
 He spake of her, as Dian had hot dreams,
 And she alone were cold; whereat I, wretch,
 Made scruple of his praise, and wagered with him
 Pieces of gold 'gainst this, which then he wore
 Upon his honoured finger, to attain
 In suit the place of's bed, and win this ring
 By hers and mine adultery, He, true knight,
 No lesser of her honour confident
 Than I did truly find her, stakes this ring,
 And would so had it been a carbuncle
 of Phoebus' wheel; and might so safely, had it
 Been all the worth of's car. Away to Britain
 Post I in this design: well may you, sir,
 Remember me at court, where I was taught
 Of your chaste daughter the wide difference
 'Twixt amorous and villainous. Being thus quenched
 Of hope, not longing, mine Italian brain
 'Gan in your duller Britain operate
 Most vilely; for my vantage, excellent;
 And, to be brief, my practice so prevailed
 That I returned with simular proof enough
 To make the noble Leonatus mad,
 By wounding his belief in her renown,

With tokens thus and thus; averring notes
of chamber-hanging, pictures, this her bracelet,
O, cunning, how I got it; nay, some marks
Of secret on her person, that he could not
But think her bond of chastity quite cracked,
I having ta'en the forfeit. Whereupon,—
Methinks, I see him now,—

[Cymbeline V. v 179~208]

또 忠僕 Pisanio도 事實을 告白하니, 豫言者가 Posthumus의 豫言을 解釋하기를 “Posthumus Leonatus가 獅子새끼다. 부드러운 大氣는 公主이며, 큰 杉나무는 Cymbeline이고 꺾어진 가지들은 王子兄弟다.”라고 했다.

王은 勝戰하여 Roma와 講和를 맺고 Caesar에게 服從을 認定하고 두 나라가 다시 和親할 것을 命令한다.

Cymbeline에는 疑妻症이 아니라 繼妃가 正妃의 公主에게 느끼는 一種의 猜忌心으로, 狡猾한 惡女이며 時時로 謀諂을 일삼고 닥치는대로 짓눌러버리는 것 만을 머리속에서 짜내는 지라, 王은 그 繼妃가 시키는 대로 手中에서 操縱되고 만다.

여기에다 惡漢 Iachimo가 不遇하게 別居中인 公主夫婦 사이에 끼어들어 離間하고자 하나, 問題의 Cloten이 죽고 Posthumus가 나타나 勝戰하니 繼妃는 自殺하고 Iachimo의 奸計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罪狀을 自白하고 만다.

上記한 두 Comedy에 나타난 것은 모두 envy 또는 jealousy에는 틀림 없으나, 이들은 그 深刻性이나 迫眞感이 缺如되어 있고 comic element나 melodrama的 乃至는 romantic한 霧圍氣가 깃들어 있다.

他人의 使喚에 依해서 變質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一時的 誤判이 일을 저지르기 前에 改過하든지 誤解가 풀리게 된다. 이것이 Othello와는 表面上으로는 類似한 듯하나 內容에 있어서는 쏘히 다른 點이다.

Othello에게는 처음부터 jealousy의 介入이 詐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esdemona도 그런 罔測한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頑強하고 自信있던 Othello에게 처음에는 개미 힘만 했던 Iago가 正直 正義의 탈을 쓰고 마칩내는 Othello라는 偉大한 堤防을 崩壞시키는데, 그것도 最後의 瞬間까지 自己自身の 行動을 疑心하면서完

순한 사랑을 저버리지 못한채 犧牲을 빚게 한다.

Iago는 冷靜하며 비록 如意치 않은 일이 있어도 目的完遂까지는 絶對로 失望하지 않고 專念해서 다음 作戰을 構想해서 敢行하는 理智력이 있어, 奸智로서 徐徐히 Othello에게 接近해서 그의 信任을 獲得하는데서 일이 쉽게 意圖한대로 풀리게 된다.

新婚初夜도 겪지 못한채 Cyprus로 出征하게된 Othello가 愛妻와 헤어질 때 하는 말이

My life upon her faith!—Honest Iago,
My Desdemona must I leave to thee.
I prithee let my wife attend on her,
And bring them after in the best advantage.
Come, Desdemona. I have but an hour
Of love, of wordly matters and direction,
To spend with thee. We must obey the time.

[I. iii 319~325]

라고 하여 “Honest Iago”라 하고, Desdemona를 그의 妻 Emilia에게 委任하니, 이제부터는 Iago가 마음대로 次期計略을 進行시킬 絶好의 機會를 갖게끔 한 結果가 된다.

Othello에는 honest, honesty라는 말이 52회 나오는데 이 말은 Othello가 한번 믿으면 疑心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믿는 性格을 잘 나타내며, 이것이 그의 特徵으로 長點도 되나, 逆으로 Iago에게 虛를 찢러 敗家亡身에까지 이르는 矛盾된 要因으로 남게된다.

凶計가 眼前에서 進行되는 줄도 모르는 Othello는 Cyprus 遠征이 天祐神助로 不戰勝으로 되어 깊은 安堵感에 젖기도 하나, 한편 未知의 不安에도 싸이는 것은 마치 Macbeth가 Duncan王을 殺害한 다음 王權은 篡奪하였으나 오히려 殺害된 Duncan을 부러워하는 場面과 類似하다 하겠다.

It gives me wonder great as my content
To see you here before me. O my soul's joy!
If after every tempest come such calms,
May the winds blow till they have wakened death!
And let the laboring bark Climb hills of seas
Olympus-high, and duck again as low
So hell's from heaven! If it were now to die,
'Twere now to be most happy; for I fear

My soul hath her content so absolute
That not another comfort like to this
Succeeds in unknown fate.

[II . i 212~222]

과

Duncan is in his grave;
After life's fitful fever he sleeps well
Treason has done his worst; nor steel nor poison,
Malice domestic, foreign levy, nothing,
Can touch him further.

[Macbeth III . ii 24~28]

과

Had I but died an hour before this chance,
I had lived a blessed time; for from this instant
There's nothing serious in mortality;
All is but toys; renown and grace is dead;
The wine of life is drawn, and the mere lees
Is left this vault to brag of

[Macbeth III . iii 102~106]

의境遇는 判異하나, 各己 바라던 最高의 瞬間이나 最後의 目的이 成就 되었을 때 그것을 오래 누리겠다는 所望보다는 그와 反對되는 不安이나 後悔하는 것이 人間의 通情인 것 같으며, 이것이 無理한 方法을 通하거나 殺傷으로 成就될 때에는 이런 엇갈림이 더욱 甚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Iago의 離間 (The Alienation of Iago)

Othello와 Desdemona는 서로 心許하는 터로 天定配匹인양 믿고 있으나, 客觀적으로 볼 때 Desdemona는 自己 아버지의 體面에 關하여는 比할바 없는 不孝를 恣行한 셈이며, Othello에게도 亦是 이 結合이 어더까지나 自然스럽고 順調로운 進行만은 아니었다.

이런 적지않은 弱點과 虛를 內包하고 있는 두사람 사이에 Iago라는 惡漢이 끼어들기란 그렇게 不可能하거나 至極히 困難한 것은 아니었다.

勿論 Iago로서도 自己의 上官이며 衆望이 높은 將軍을 打倒하는 것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리라 고는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Iago는 相對方인 Othello와 Desdemona의 性向이나 心理를 너무 꿰어서 通察하고 남음이 있어 自由自在로 손아귀 속에서 籠絡하다 싫이 하여, 그는 陷阱만 파 놓았을 뿐 Othello가 제발로 걸어들어 가게 한다. 이런 結果까지는 여러사람—Roderigo, Cassio, Emilia, Bianca 등의 人物이 動員됨은 勿論이고, 한때는 Iago 自身도 危機에 몰리기도 하는 thrill도 겪는다.

주로 第2幕에서 第4幕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 事態에서 Othello는 처음의 矚矚한 將軍으로 軍人精神에 透徹하였던 그가 아니고 Iago에 依해서 만들어진 全然 다른 사람 卽 Iago의 idea를 그대로 받아 그가 指揮하는대로 不平等이 順從하는 下手人格으로 轉落된다. Iago가 Desdemona에게

“For I am nothing if not critical” [II. iii 137]

“I am not what I am” [I. i 69]

라고 한 것은 그의 本性을 端的으로 나타낸 것으로 將來 이룩할 舉事에 臨하는 그의 心的 態度가 如實하다. 모든 事物을 날카롭게 꿰어서 그 弱點과 虛點을 찌르는 面從腹背하는 態度를 取해가며 machiavelli의 行動을 取하겠다는 것으로 看做될 뿐만 아니라 相對方의 性格은 勿論이고 생각도 미치지도 않은 것까지 꾸며대고 있다.

The Moor(howbeit that I endure him not)
Is of a constant, loving, noble nature,
And I dare think he'll prove to Desdemona
A most dear husband. Now I do love her too;
Not out of absolute lust (though peradventure
I stand accountant for as great a sin)
But partly led to diet my revenge,
For that I do suspect the lusty Moor
Hath leaped into my seat; The thought whereof
Doth, like a poisonous mineral, gnaw my inwards;
And nothing can or shall content my soul
Till I am evened with him, wife for wife;
or failing so, yet that I put the Moor
At least into a jealousy so strong
That judgement cannot cure.

[II. 1. 316~330]

自己의 淫慾으로 推理해서 Othello를 間夫로 만드는 것은 普通으로는 미치기 어려운 點인데 이것을 既定事實로 하고, 事不如意하면 逆襲해서 不治의 痼疾인 疑妻症을 불러 일으켜 癡人으로 만들겠다고 決心하니 그 心思가 惡辣함을 지나 禽獸以下라 하겠다.

또 每事에 自身이 直接 干涉하지 않고 뒷전에서만 指揮하는 立場을 取하니, 이들의 結婚을 無効化시키고 Desdemona를 再嫁시키려 얼간이이며 失戀에 빠진 Roderigo를 刺戟시킨 첫 試圖에서 無慘히 失敗하자 Roderigo를 또 毆어서 金錢을 喝取하고는, Cassio를 相對로 해서 싸움을 부치는데 Iago는 自己가 昇進할 것으로 믿어 왔던 副官자리를 Cassio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部下로 되니 Cassio에게도 적지 않은 敵愾心을 지니고 있다.

이리하여 Roderigo를 教唆해서 酒癖이 사나웁고 好色漢인 Cassio가 失手를 저지르게 하고는 軍紀에 嚴格한 Othello에게 이를 일러바쳐 큰 目的의 하나가 如意하게 成사리 이루어진다. 따라서 Iago에게는 Othello에게 좀더 接近할 機會가 나타난다.

이것에만 滿足하지 못하는 Iago는 다음에는 Othello로 하여금 極度の 疑妻症을 일으켜 完全히 發狂狀態까지 몰아 넣어서 自己意識을 喪失시키고 마음대로 Othello를 부리게 되는데, 이것도 失職되어 失意에 빠진 Cassio에게 걸으로는 同情과 友情을 보이는듯 하여 그를 利用해서 Desdemona와 不義의 關係가 있는 듯이 謀諂한다.

O. you are well tuned now!

But I'll set down the pegs that make this music,
As honest as I am,

[II i 231~233]

新婚夫婦의 幸福해하는 모습에다 餘地없이 찬물을 끼얹겠다는 배짱을 드러내고 그것도 正直을 假裝해서 秋毫도 Othello가 疑心할 餘地를 주지 않는다. Othello가

Cassio, I love thee;
But never more be officer of mine

[II iii 253~4]

라고 하는데 敵陣앞에서 臨戰態勢에 있는 指揮官으로는 있을 법한 일이 나 이 處事로 말미암아 忠臣을 排斥하고 奸臣을 받아들이니 結果的으로

는 自滅로의 一步를 앞당긴 셈이라는 것을 當本人 Othello가 알리 않고, Cassio을 峻嚴하게 罷職시킴으로 Iago는 別勞苦없이 劃策이 들어맞고, Othello는 그를 加一層 信任할 수 밖에 없다.

Cassio는 어처구니 없게 한번 부린 酒酣으로 난데없이 罷免 당하고보니 아직도 그자리에 戀戀함을 잊을 수 없다. 이 虛點에 파고드는 것이 Iago로 平素 Cassio와 Desdemona가 格別한 關係임을 惡用하여, 이 機會를 利用하여 두 사람을 頻繁히 接觸시키는 한편 Othello에게는 Desdemona를 鐵石같이 믿어왔던 貞烈함이 徐徐히 繼續해서 무너지도록 모든 計略을 펴낸다.

Iago. Ha! I like not that.

Oth.

What dost thou say?

Iago. Nothing, my lord; or if-I knew not what.

Oth. Was not that Cassio parted from my wife?

Iago. Cassio, my lord? No, sure, I cannot think it,
That he would steal away so guilty-like,

Seeing you coming.

[III iii 38~44]

마치 病주고 樂주는 格으로 Cassio보고 Desdemona에게 懇請하도록 勸誘하고, 두사람이 마주치는 場面을 Othello에게 曲解시키는데 그것도 間接의이며 마지못해 하는 척하고 慇懃히 그들을 두둔하는 듯하니, Othello의 身熱이 차츰 오르게 되고 純粹하고 淡泊한 그의 마음씨에는 때아닌 颶風이 未久에 불어닥친다는 豫報인양 검은 구름이 太陽을 가리기 始作한다.

한편 天真한 Desdemona는 自己의 사랑만 믿고 더우기 新婚初의 첫 付託이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 믿고 Cassio의 復職을 끊임없이 說服하려드니 이것은 불붙기 始作한 Othello의 內心에다 기름을 끼얹진 格이 되버렸다.

Excellent wretch: Perdition catch my soul

But I do love thee! and when I love thee not,

Chaos is come again,

[III iii 102~104]

Othello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自覺心과 警覺心을 자아내고, 不吉한 豫告처럼 Desdemona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自身은 天罰을免치 못한다고 굳게 盟誓하나 內心 저속히 動搖의 빛이 감돌기 始作한다.

Iago는 自己의 弊習이며 좋지 못한 버릇이 남의 弱點이나 不義한 것을 파내고 事實과 다른 것까지도 猜忌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까지 吐露하여 Othello가 더욱 그를 正直한 사람으로 믿게 만들며, Cassio도 軍人으로 reputation을 生命보다 尊重하게 되니 이것 亦是 그에게는 惡用하기 쉬운 鎗으로 된다.

Good name in man and woman, dear my lord,
Is the immediate jewel of their souls.
Who steals my purse steals trash: 'tis something, nothing:
'Twas mine, 'tis his, and has been slave & thousands:
But he that filches from me my good name
Robs me of that which not enriches him
And makes me poor in deed.

[III iii 180~186]

이에 이르러서 Iago는 安心하고 擧事의 焦點이며 窮極의 目標인 jealousy를 스스로 操心스럽게 言及하게 된다.

O, beware, my lord, of jealousy!
It is the green-eyed monster, which does mock
The meat it feeds on. That cuckold lives in bliss
Who, certain of his fate, loves not his wronger:
But O, what damned minutes tells he o'er
Who dotes, yet doubts: suspects, yet strongly loves!

[III iii 191~196]

Jealousy에 關해 Lily B. Campbell은 Shakespeare's Tragic Heroes의 Chapter XIII Othello; A Tragedy of Jealousy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But since jealousy is also a species of envy, we need to examine the nature of envy. And of envy there are four kinds, according to The French Academie again: (1) the envy that we feel because the profit of others is so great as to hurt our own: (2) the envy that we feel because the welfare or profit of another has not happened to us (being in reality a kind of covetousness): (3) the envy which makes us unwilling any other should have a good which we desire or which we have wished for and could not get: and (4) the envy which makes us feel ourselves hurt when others receive any good.

또한 jealousy를 細分해서 規定하기를

According to this author, jealousy comes by reason (1) of pleasure, (2) of passion, (3) of property or right, and (4) of honour. And he defines these

terms in the passages which I quote:

Jealousie commeth of Pleasure, when wee estimate and prise the delight wee take in the Partie we love, at so high a rate, as we would engross it wholly unto our selves, and when wee thinke, or imagine, it will decrease and waxe lesse, if it should be communicated, or lent unto another:

Jealousie proceedeth from Passion, when we covet to enjoy or possesse that which we must love and like, wonderfully fearing lest we should loose the possession there of, as if our Mistresse should become a secret sweet Friend into another man.

Thirdly, Jealousie springeth from the Propertie or Right that wee have, when we (enjoying our Lady or Mistresse) would have her soly and wholly unto our selves: without being able (by any means) & suffer or endure, that another man should have any part or interest in her, any way, or at any time:

Lastly, Jealousie commeth in respect of a mans Reputation and Honour, according as his nature is, or as his Breeding hath beene and liveth, because (in this point) divers are the opinion of men, and as contrary are the customes of countries, whereupon they say, that the Southern Nations, and such as dwell in hot Regions are very Jealous: eyther because they are much given and inclined unto love naturally: or else for that they hold it a great disparagement and scandall, to have their wives, of their Mistresses tayned with the foule blot of Unchastitie: which thing those that are of contrary Regions, and such aslive under the North-Pale, take not so deepe at the heart.....

[Tragic Heroes by Lily Campbell p.149~50]

上記한 引用文中 마지막 4項이 바로 Shakespeare가 主眼點으로 삼은 것이다.

For nought I did in hate, but all in honour.

[V ii 344]

Othello는 아직도 굳게 믿고 마음 속의 葛藤을 制止하려고 無限히 努力하고 있으나, 이를 짐작한 Iago는 寸暇의 餘裕도 없이 새로운 攻擊을 퍼붓는다.

She did deceive her father, marrying you: And when she seemed to shake and fear your looks, She loved them most.

[III iii 232~235]

묻었던 불을 일으키니 半信半疑하고 있는 Othello도 여기서는 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I am bound to thee for ever.

[Ⅱ, iii 243]

內心 快哉를 부르게 된 Iago는 여기서 또다시 난데없는 物的證據로 손수건을 提示하게되니 Othello는 이를 家寶以上으로 重視하고는 거의 決定的인 斷案을 내리려 하다가도 亦是 첫사랑의 純潔을 못잊고 Iago에게 反擊을 加해 본다.

Villain, be sure thou prove my love a whore!
Be sure of it: give me the ocular proof:
Or, by the worth of man's eternal soul,
Thou hadst been better have been born a dog
Than answer my waked wrath!

[Ⅱ iii 404~408]

이 論駁과 反證提示를 밀고 나간다면 Iago의 奸計도 끝장이 날 듯 싶었으나, 이때의 Othello는 Iago가 바친 毒藥을 삼킨 後와 같아 事物을 直視하기는 커녕 Iago의 眼目으로 觀察할 따름이라, 여기서 進一步하여 Othello가 오히려 Iago의 앞장을 서니 嫉妬가 疑妻症으로 變하고 다시 激烈한 復讐心에 불타 Othello 自身은 完全히 變身된 사람이라 하겠다.

Damn her, lewd minx! O damn her!
Come, go with me apart. I will withdraw
To furnish me with some swift means of death
For the fair devil. Now art thou my lieutenant.

[Ⅱ iii 533~536]

罪짓지 않은 罪人으로 生命의 犧牲이 目前에 닥쳐왔건만 Desdemona는 스스로의 純潔과 純眞함을 믿고 조금도 自己에 對한 男便의 사랑을 疑心하지 않아 더우기 男便이 疑妻症같은 것을 일으키리라고는 絶對 생각하지 않는다.

Desdemona에게는 致命的인 證據物과 同時에 Cassio의 娼女 Bianca마저 나타나니 걸잡기 어려우리 만큼 事件이 進展되어 Othello는 確證없이도 心證을 굳히게 된다.

거의 完全에 가깝도록 變貌・變心하는 場面이 第4幕에서 歷然하게 나타나는데, Iago는 寸時도 그 機會를 놓치지 않고 繼續 Othello에 拍車를 加하는 것으로 Cassio와 Bianca의 對話를 엿듣도록 한다. 平常時 같으면 생각조차 하기 힘든 賤하고 卑劣한 것이었으나, 이미 Othello로의

眼目에는 事物을 直時하기 어려움고 다만 Iago의 獸心이 가르치는 대로 따를 뿐이다. 問題의 손수전이 男女間에 往來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참을 수 없는 地境에 到達한다.

이에 앞서 假想한 Cassio와 Desdemona의 醜惡하고 淫亂한 bed-scene 描寫는 第1幕에서 Brabantio를 腹痛시킨 Barbary horse 云云에 比할 수 없을 만치 野卑하고, Iago의 險口家로서의 面目을 잘 나타낸다.

더구나 妻家側 親戚인 Lodovico 앞에서 저지르는 行悖는 完全히 理性을 잃고 發狂한 사람이 된다.

Is this the noble Moor whom our full senate
call all in all sufficient? Is this the nature
whom passion could not shake? whose solid virtue
The shot of accident nor dart of chance
Could neither graze nor pierce?

[W i 290~294]

그만큼 Iago는 目的達成에 더욱 近接하게 된다.

드디어 Desdemona가 不義, 不貞을 저지르는 娼女라고 Othello는 斷定하기에 이른다.

She says enough: yet she's a simple bawd
That cannot say as much.

[IV ii 23~24]

愛人을 찾아 맨발로 Palestine까지 걸어난 女人이 있다고 Emilia가 말하자 Desdemona가 哀調를 띠며 노래하는 모습은 Hamlet에서 Ophelia가 노래하는 第4幕 5場을 聯想시킨다. 이처럼 女人에게는 씻을 수 없는 受侮와 虐待를 받고 더욱이 命在傾刻의 危機에 臨하면서도 男便을 怨望하거나 不平함이 없이 오히려 自戒心을 일으키는 것은 完全한 사랑만을 알고 있는 Desdemona의 心境의 發露다.

第1幕中 元老院에서 아버지 意思에 어긋나는 證言을 하던 Desdemona와는 너무나 對照를 이루고 있으니 아마 이런 面이 그녀의 眞面目인지도 모른다.

Good night, good night. Heaven me such uses send,
Not to pick bad from bad, but by bad mend.

[IV iii 118~120]

第2幕에서 第4幕까지 展開된 場面은 여러 角度로 볼 수 있으나 굳건

하고 믿음직한, 國家防衛의 獻身하고 있는 Othello가 自然스런 方法으로 得配한 天定配匹인 Desdemona와 新婚의 꿈을 이루지 못한채 人生波瀾에 휩싸이게 되어 視野가 흐려졌을 뿐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 하늘을 두고 盟誓한 굳은 사랑의 決意가 散散조각이 나며 乃終에는 불타는 嫉妬心이 疑妻症으로 變해서 앞으로는 生死를 걸고 復讐하고자 하는데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Shakespeare는 第5幕을 執筆함으로써 主人公 Othello를 한낱 匹夫의 低俗한 感情인 疑妻症의 祭物로 만들지 않고, 그를 더욱 높은 次元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崇高하고 神聖하게끔 만들기 爲해서 神意의 代理者 또는 正義의 代行者로 犧牲시킨다.

筆者가 理解하는 바로는 第4幕까지에서 Othello가 Iago의 奸計에 몰려 自意識을 잃고 完全히 다른 사람으로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變貌하게 되는데 이것은 Iago의 Prompter의 役割이 完璧을 期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第5幕에서는 이러한 通俗의이고 低劣한 一種의 根據없는 痴情關係를 보다 次元높은 完全한 悲劇의 水準까지 올리게 되는 것은 Shakespeare의 意圖와 能熟한 筆致가 아니었으면 期待하기가 어려웠고, 作家의 힘으로 變貌되어 發狂狀態까지 이르렀던 Othello가 거의 再生 復活하듯이 悲劇의 主人公으로 永遠히 남게 되는 것이다.

5. Iago와 Aaron

筆者는 數年前 「屠殺劇 Titus Andronicus」란 글에서 「Aaron과 Iago」를 한 chapter로 쓴 일이 있다.

Shakespeare가 描寫한 惡人像에는 이들외에도 Richard III, Macbeth 등도 있으나 이 두 사람은 王座에 올랐던 사람으로 모두 將軍出身으로 殺傷으로 篡奪한 것까지는 類似點이 있으나 性格上으로는 判異하다.

Richard는 體格上的 缺陷이 나타내듯이 心性이 歪曲되어 거의 興味를 느끼며 만들어서 사람을 害치고, 더우기 自己가 殺害한 Henry IV의 太子 Clarence의 葬儀行列을 멈추게 하고 그의 未亡人인 Lady Anne에게 求婚해서 夫人으로 맞아드리는 등 行悖는 禽獸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짓을 한다.

Macbeth도 善君인 Duncan王을 殺害하고 王位에 오르지만, 그는 惡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後悔하고 良心의 苛責을 받고 있으니 그의 天

성이凶惡하다고斷定하기는 어렵다.

惡漢 Iago와 이들 두王을對比시키는 것은惡行自體에는共通點이 있겠으나位階가 너무떨어짐으로 Aaron과比較하고자 한다.

Aaron도 Othello와 같이 Moor族으로 되어있으며 Iago와 다른點은 그가亡國의王妃 Tamora의間夫로子息까지 있는 것이다. Aaron도凶惡殘忍한 것은 아마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Tamora를通해서나 또는 Tamora의子息 Demetrius와 Chiron을教唆해서 Titus에對한復讐를하게 하는데 Titus의 딸 Lavinia를輪姦시키고나서四肢를切斷시키는等形言하기조차 어려운蠻行을例事로해치운다.

그러나 Aaron이 Tamora의間夫의位置에서恣行하는凶計는位階가 다른 Iago가將軍인 Othello에게近接해서그로하여금自己가 미리計劃한대로陷阱에自進해서빠지게하는 것과는本質적으로差異點이크다.

Othello가亡身하는途上에서 조금도疑心하거나事實을確認함이 없이 Iago의心中으로 파고들게되는 것은 Othello의率直하고直線的인本性에도起因되려니와,奸智·凶計로 가득차 있고最後의瞬間까지冷徹함을 잊지않고順序에 따르며 그러나 늦추지 않는 차분한 Iago의特性때문일 것이다.

그가相對方的心的態도와平素의性품을熟知하고 있으며 Othello가 거의終局에 가서實吐하는心情을 그는 처음부터 잘 알고 그것을惡用했던 것이다.

For nought I did in hate, but all in honour.

[V ii 344]

Of one not easily jealous, but being wrought,
Perplexed in the extreme:

[V ii 399~400]

The Moor is of a free and open nature
That thinks men honest that but seem to be so

[I iii 417~18]

敵을攻略하기前에 모든機密이나弱點을 알고計劃을 짜내니百戰百勝이確實하며, 더우기初戰에서의失敗를介意하지 않고作戰을變更해서 마지막勝利를얻도록無盡頭腦作戰을敢行하는 Iago는直接的이

고 利己의인 手法으로 人間以下の 惡辣性만을 드러내는 Aaron에 比하면 高度히 發展된 人間の 奸計・凶策이라 하겠다.

Aaron의 禽獸같은 非情의 野獸性은 다음에 잘 나타난다.

Even now I curse the day (and yet I think
 Few come within the compass of my curse)
 Wherein I did not some notorious ill:
 As kill a man, or else devise his death:
 Ravish a maid, or plot the way to do it:
 Accuse some innocent, and forswear myself:
 Set deadly enmity between two friends
 Make poor men's cattle break their necks:
 Set fire on barns and haystacks in the night
 And bid the owners quench them with their tears.
 Aft have I digg'd up dead men from their graves
 And set them upright at their dear friend's door
 Even when their sorrow almost was forgot,
 And on their skins, as on the bark of trees,
 Have with my knife carved in Roman letters
 'Let not your sorrow die, though I am dead'
 Tut, I have done a thousand dreadful things
 As willingly as one would kill a fly:
 And nothing grieves me heartily indeed
 But that I cannot do ten thousand more.

[Titus Andronicus V i 125~144]

Aaron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害치거나 放火, 掘塚같은 끔찍스런 일을 例事로 해 치우는데 이런 일에는 別로 motivation이나 morality 또는 justice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다. 다만 觀客이나 讀者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끔찍스러움이 있을 따름이다. 洗鍊된 悲劇에는 이런 慘酷한 狀況만으로는 達成되기 힘들다.

Iago가 自己를 죽여가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內心과 外面에 다른 行動을 해낼 수 있는 것은 '自己를 알고 敵을 알면서 싸운다'는 兵法과도 같다.

Though I do hate him as I do hell pains,
 Yet, for necessity of present life,
 I must show out a flag and sign of love,
 Which is indeed but sign.

[I. i 170~73]

奸臣은 自古로 東西洋의 區別이 없는 듯하나 西洋이 보다 더 非情하고 不倫하며 淒慘함이 人間보다 野性動物에 가까운 點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感을 준다.

Iago가 頭腦를 狹窄하게 惡用하여 目的達成까지는 殘忍한 手法을 한 치도 늦추지 않으며, 銳利함과 殘虐함 想像하기 어려운 짓을 만들어 가며 相對를 破滅시키는 것은 Shakespeare가 意圖한 人間の 邪惡함이 到達할 수 있는 境地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最後에 가서 Desdemona의 殺害方法까지 教唆 指示하면서 事實을 暴露시킨 妻 Emilia를 스스로 殺害하면서 自己의 목숨만을 保全하려는 Iago는 可謂 人面獸心の 極致라 할 것이다.

6. Othello의 犠牲 (The Sacrifice of Othello)

Iago가 施藥한 毒素가 豫想以外로 作用하여 그가 期待한 效果以上の 것을 보게 되니, Othello는 完全히 自制力을 喪失하여 興奮을 가시지 못하고 狂奮 發作까지 일으키는 醜態를 바로 Iago 眼前에 演出하니 Iago는 內心 快哉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더욱, 秘密裏 結婚한 後 Brabantio가 그 成婚을 否定하면서 이를 人力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다만 魔力이나 妖術의 힘을 빌렸을 것이라 하였을 때, 依然한 態度로 이를 否定하던 大將軍 Othello가 理性을 喪失했다고는 하지만 손수건에까지 魔力이 注入되었다고 云云하는 것은 可笑로운 前後撞着일뿐 아니라, 前後不覺의 狀態로 虛脫感에 빠져 視野가 完全히 가려진 것을 意味한다. 敵이 파 놓은 陷井으로 自進突入한 셈이 되니 Othello의 視野가 있을 터이 없다.

이때 Iago의 妻 Emilia가 極口 Desdemona의 潔白함을 主張하고 그를 擁護하려드나 이미 Othello의 聽覺은 癱痺되어 諫言이 귀에 들릴 道理가 없다.

이러한 場面까지가 Shakespeare가 Cinthio의 原本을 劇化하기 爲해서 多少 손질한 줄거리인데, 萬若 Othello의 悲劇이 이런 줄거리로 끝을 맺었다면 그것은 한낱 凡人의 痴情殺人劇의 範疇를 誇히 넘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Shakespeare는 이 地境에서 可能한 모든 것을 動員해서 마치 死

者를 復生시키는 것처럼 거의 不可能한 일을 해낸 것이다.

어처구니없이 惡辣한 Iago에게 欺瞞되어 敗家亡身하게 된 愚直한 Othello를 再生 復活시켜 永遠한 悲劇의 主人公으로 만든 것이 그의 創作이며 또한 Othello가 지금까지 四大悲劇中の 하나로 君臨하는 緣由로 된다.

第1幕의 終末에서 Iago가 自信있게 豫言한 바 있으나 Othello는 한걸음 더 나가 乃妻殺害의 方法까지 諮問하게 되니 實로 主客이 顛倒되고 오히려 Othello의 性急한 快定과 處事が 可觀이다. 正義의 代行者로 自處하는 Othello가 乃妻殺害를 敢行하면서도

O balmy breath, that dost almost persuade
Justice to break her sword!

[V ii 16~17]

神意의 執行을 Othello는 自己가 代行해야만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비록 그의 私事로운 復讐라 할지라도 神의 法則에 依據하여 懲惡함으로써 Elizabeth時代의 觀衆에게는 Othello가 悲劇의 主人公으로 깊은 意義를 갖게 된다.

따라서 Othello는 그의 行動이 果敢한 正義의 表現으로 行動과 刑罰의 完全한 平衡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Desdemona도 第一幕 元老院場面에서 보였던 몇몇한 自身の 抱負와 純粹한 사랑의 表現을 한 積極性을 띠고 未知의 外國人 特히 黑人 將軍과 結婚하는 大膽性을 찾을 길 없고 너무나 被動的이며 自己가 저지른 일을 過小評價하고 Othello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

Alas, why gnaw you so your nether lip?
Some bloody passion shakes your very frame.

[V ii 43~44]

Othello는 Cassio와 Desdemona의 關係를, 特히 어머니가 家寶같이 불려준 貴重한 손수건 등 그나름대로 證人과 證據物까지 直接 間接으로 提示되고 보니 그의 心證이 더욱 굳어져서 그 以上 疑心할 바 없는 것으로 斷定하나, Desdemona는 一體 不應 否定으로만 始終하며 事態가 危急한데도 如前히 天真瀾漫한 受動的 姿勢로 一貫할러드니 Othello를 刺戟하여 激奮을 참을길 없어 呪咀와 더불어 復讐의 鐵槌를 내리는 것이 至當하다고 다시 다짐한다.

Had all his hairs been lives, my great revenge
Had stomach for them all

[V ii 90~91]

奸惡한 Iago의 正體가 暴露되고 Desdemona의 貞烈함이 드러나나, 이 미 늦었으며 Othello는 어쩔줄 모르고 다만 悲哀와 後悔에만 사로 잡힌다.

그러나 本是 名聲과 正直을 生命으로 삼았던 軍人인 Othello는 끝까지 自己行動을 正當化 시킨다.

An honourable murderer, if you will;
For naught did I in hate, but all in honor.

[V ii 343~44]

Othello는 Desdemona에게 敢行한 神意의 代行과 正義의 行動을 自身에게도 行使하는 discrepancy를 犯하는데 觀衆에게는 이 行動이 저속이 共感이 가게끔 된다.

I kissed thee are I killed thee. No way but this
Killing myself, to die upon a kiss.

[V ii 414~5]

殺意를 愛情과 相殺하려는 大端히 矛盾된 處事이나 Othello의 當時의 心境으로는 別道理없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

다만 賤夫의 復讐였다면 不貞女만 膺懲함으로서 終末을 지을 것이나, Othello에게는 그런 淺薄한 行動은 許容되지 않는다.

이러한 過程에서 愚劣한 下手人 Roderigo가 殺害되고, Emilia는 危險을 무릅쓰고 事實을 告白함으로서 惡夫 Iago의 손에 쓰러지고, Othello는 Desdemona를 絞殺하고는 같은 寢臺위에서 自決한다.

Othello가

Will you, I pray, demand that demi-devil
Why he hath thus ensnared my soul and body.

[V ii 350~351]

이에 對하여 Iago는

Demand me nothing. What you know, you know.
From this time forth I never will speak word.

[V ii 352~4]

Desdemona가 臨終時 Emilia에게 말하는

Nobody I myself, Ferewell.

Commend me to my kind lord. O, farewell!

[V ii 149~50]

과는 本質的인 對照를 이루며 또한 그들의 本性이 如實이 나타난다.

Othello와 Iago의 마지막 臺詞에서

For in my sense, 'tis happiness to die.

[V ii 337~8]

는 여러모로 解釋되겠으나, 惡行을 無數히 犯한 Iago를 直時 殺害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苦痛을 減免시켜주는 結果가 됨으로 徐徐히 苦楚를 겪게한 다음에 天罰에 依하여 시들도록 하는 것과, 또한 神意의 代行者로서의 Othello의 主觀的 態度나 利己의 行動을 超越한 一種의 心的 待機나 餘裕조차 보였다 하겠다.

第5幕에서는 前述한대로 主人公 Othello는 本性을 저버리고 狂亂하고 復讐心에 불타서 前後不覺에 失神狀態에 빠져있다가 徐徐히 劇作家의 筆致에 따라 再生 復活하는 숨가쁜 場面の 展開다.

結

Othello는 單純히 猜忌心으로 인하여 疑妻症에 빠짐으로서 愛之重之 하던 자기부인을 絞殺하는, 一種의 疑妻症이 빚은 悲劇이라는 것은 너무 速斷인 것이다.

勿論 歷戰의 勇士이며 王家出身이었지만 異邦人이며 黑人이라는 것 때문에 當時에 賤視를 免하기 어려운 Othello였지만 Venice에서는 國難을 當하여 그를 起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두사람의 結合에는 無理 不自然 나아가서 悖倫까지도 걸드린 印象이 풍기었으니, 이 弱點과 虛點을 노린 것이 바로 稀代の 惡漢 Iago의 奸計이다.

Shakespeare가 創作한 惡人中에서도 Iago는 Richard III나 Macbeth 또는 Aaron 보다도 더욱 奸狡하며 못된 智慧를 써가며 끝까지 否定이나 失敗를 모르고 目的한 바 대로 치달쳐, 終局에는 猜忌心과 疑妻症으로

敗家亡身, 여러 無垢한 사람과 自身까지 殺傷하게 한다.

그러나 Shakespeare는 이것을 comedy나 melodrama에 그치지 않게 하기 爲해서, 처음부터 Othello가 生命보다 아끼던 名譽와 正直을 살리도록 試圖하여 軍人精神을 充分히 發揮시켜 懲惡하는 姿勢로 臨하게 하는 同時에, 스스로는 神意의 代行者 正義의 代辯者로 그의 行動을 正當化시키도록 努力하여 陷阱에 빠진 主人公이 다시 햇볕을 보고 죽게 한다.

Othello가 이러한 險難한 過程을 겪어옴에 있어 完全한 態度나 出動을 取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무릇 人間의 思索이나 行動에는 瑕疵와 前後撞着이 따르게 마련이며 虛點을 內包하게 된다.

Othello도 이例外는 아니며 形言하기 어려운 難境에서 다시 蘇生 復活하고자 하는 必死의 努力에는, 우리 모두 同情과 共感을 禁할 수 없으며 따라서 Othello가 永遠한 人間의 悲劇으로 남게되는 것도 Shakespeare의 偉大한 構想과 雄大한 筆致가 이룩한 一大傑作임에 틀림없다.

參 考 書 籍

- Harley Granville-Barker : Preface to Othello 1958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Leslie A Fiedler: The Stranger in Shakespeare. Stein and Day Publishers, N. Y.
- John Holloway: The Story of the Night. Univ. of Nebraska Press. Lincoln Shakespeare's
- Lily B. Campbell: Shakespeare's Tragic Heroes; Slaves of Passion. Barnes & Noble, Inc., N. Y.
- Alfred Barbage: Shakespeare the Tragedi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 E.K. Chambens: Shakespeare A Survey. Hill and Wang. N. Y.
- Edward Dowden: Shakespeare His mind and art. Capricorn Books, N. Y. 1962.
- Robert Speaight: Nature in Shakespearian Tragedy. Collier Books, N. Y.
- Arnold Kettle ed.: Shakespeare in a Changing World. International Publishers, N. Y.

- Saul N. Siegel: *His Infinite Varsity. Major Shakespearean Criticism since Johnson J. B.*, Lippincott Co. Philadelphia and N. Y.
- Edith Sitwell: *A Note on William Shakespeare*. Beacon Press. Boston.
- Theodore Spenc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Collier Books, N. Y.
- Milton Crane: *Shakespeare's Prose*. Th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Kenneth Muir: *Shakespeare's Tragic Sequence*. Hutchinson Univ. Library, London.
- Norman Rabkin: *Approaches & Shakespeare*. McGraw-Hill Book Co. N. Y. Toronto London.
- Frank Kermode ed.: *Four Centuries of Shakespearian Criticism*. An Avon Library Book.
- G. B. Harrison: *Shakespeare's Tragedies*. Oxford Univ. Press, N. Y.
- Elmer Edgar Stoll: *Art and Artifice in Shakespeare*. Barnes & Noble N. Y.
- C. Merton Babcock: *Shakespeare Wisdom and Wit. The Peter Pauper Press Mount Vernon*. N. Y.
- The Shakespeare Association of America, Inc.: *Shakespeare Quarterly*. Vol III. July 1952.